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의 표현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강 철 기

경상대학교 산림과학부

A Basic Study on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Walls Expressing the Korean Traditional Atmosphere

Kang, Cheol-Gi

Divi. of Forest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general representation methods of wall with respect to the Korean traditional atmosphere based on case studies. 16 case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 traditional walls and designed walls expressing the traditional atmosphere. And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walls were viewed by two sides : the type of message(shape · material · figure) and the role of sign(icon · index · symbol).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 To reproduce the traditional walls is possible, in this case the role of sign is icon.

- To reproduce or represent the visual element of the traditional walls will be also possible, in this case the role of sign is index.

It is recommended to use 3 types(shape · material · figure) of message in representing methods of walls expressing the Korean traditional atmosphere.

- Shape : Approach to shape is more effective than material or figure. It is possible to represent the shape element of the traditional walls. Specially, it will be effective to utilize the capital of traditional walls as shape element.

- Material : Conventional materials with less artificial processing used at traditional walls will be better suited.

- Figure : To utilize the traditional figures is possible. Specially, it will be effective to utilize the traditional figures as design approach with respect to the sense of place.

Futher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and the design mechanics.

I. 서론

설계가는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분위기에 부합되는 형태의 시각요소들로 공간을 꾸미게 된다. 이는 인간을 위한 환경조작이라는 환경설계의 뜻에는, 「환경은 인간의 모습 살이와 다양한 활동을 담는 단순한 그릇으로서의 쓰기 위한 도구 이상의 것」(황, 1984, p.1)으로 간주하여 「인간의 가치와 태도를 반영하고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생각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장소성과 연관된 의미적 측면이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한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키 위한 대부분의 환경설계적 접근은 피상적인 단순한 문제해결식 접근방식을 취하여 왔고, 환경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요소를 찾는 보다 근원적이고 의미적인 접근방식은 이제껏 그 중요성에 비추어 도외시되어 왔다(이, 1988, p.11).

담장이란 어떤 건축물 또는 어떤 지역을 둘러 막아서 보호하는 구조물을 의미하며, 공간상에서는 공간의 규모를 한정짓는 수직요소로 나타난다(정, 1975, p.9). 공간한정요소로 작용하는 벽면으로서의 담장은 큰 스케일의 수직적인 시각요소이므로, 경관의 질을 지배하게 되는 중요한 설계요소이다(임, 1986, p.255). 그러나 담장은 생각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설계적인 잠재력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설계적 무관심으로 오로지 기능적 용도를 충족시키는 설계요소로서만 취급된 경우가 많았다.

담장의 설계시에는 쓰기 위한 도구로서의 물리적인 기능이 같더라도, 담장이 위치하는 공간에 따라 생각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담장은 다르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적지에서의 담장과 도심지에서의 담장을 설계할 경우 담장의 형태는 서로 달라야 할 것인데, 사적지에서는 전통적인 형태로 도심지에서는 보다 현대적인 형태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시각요소이자 설계요소인 담장의 형태는 담장이 위치하는 공간의 분위기와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적 측면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부공간을 형성하는 중

요한 시각요소이자 설계요소로서의 담장을 대상으로, 장소성과 연관된 생각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담장의 의미적 측면을 다루고자 하였다.

장소성에 대한 내용적 범위를 전통공간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은 특성상 다른 공간과는 똑같을 수 없고 다르게 되는데, 다양하고 수많은 공간을 의미적인 측면에서 큰 범주로 양분할 경우, 전통적인 분위기의 공간과 현대적인 분위기의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류로, 서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는 전통공간의 현대공간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설계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고유의 것을 찾자는 전통공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기존의 연구(정, 1975; 안, 1980; 주, 1981·1983; 박, 1984; 신, 1986; 이, 1987; 조, 1989; 허, 1991·1994 등)들은 대부분 전통담장의 개략적인 분류와 기능 등에 관한 해석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설계적인 접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히기 위하여 그 목적이 있다.

첫째, 전통공간에 사용된 담장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유용한 의미전달요소이자 시각구성요소를 밝힌다.

둘째,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유용한 설계요소로서의 담장의 보편적인 표현방법을 모색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되는 전통공간·전통담장·전통적인 분위기라는 용어들의 개념을 추상적 개념의 특성상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통공간·전통담장·전통적인 분위기라는 용어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연하게

나마 갖고 있는 현대공간·현대담장·현대적인 분위기와는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상대적인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한다.

II. 연구대상지와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의 선정방법

사례연구의 대상은 「전통공간의 담장」과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담장」으로 구분하였다.

전통공간의 담장에 대해 사례연구를 한 이유는, 전통공간의 담장을 고찰함으로써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유용한 설계요소로서의 담장의 보편적인 표현방법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담장에 대해 사례연구를 한 이유는, 설계가가 갖고 있는 심상에 그려진 의미를 표현한 설계결과물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것과 공통적인 요소가 많은지를 밝혀, 현재의 설계기법으로 가능한 의미적 표현의 설계적 한계를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전통공간의 담장은 전통담장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거나 전통담장의 원형을 추측할 수 있는 사례 중에서, 전통담장의 재해석을 통한 현시대에서의 설계적인 표현방법의 모색이라는 관점을 감안하여, 「전통공간에서 활용된 담장기법의 종류」와 「전통공간의 공간별 위계에 따른 담장기법의 차이」, 그리고 「장소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담장의 표현기법의 종류」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적합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답사한 전통공간의 담장들 중에서 위의 3측면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시키고, 시각구성의 4요소인 형태요소·선요소·질감요소·색채요소를 고려하여 현재의 기법으로 설계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례로 한정하였는데, 특히 의미적인 관점에서 전통문양이 잘 표현되어 있고 담장재료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정하였다.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는 양(양, 1991, pp. 48-52)이 한국조경에서의 전통계승의 방법으로 제시

한 방법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된 「형태의 모방에 의한 방법」과 「형태의 분석에 의한 방법」에 의한 설계사례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담장이 장소성을 나타내는 의미전달요소로서의 역할이 크고, 미·구조·기능·내구성·관리·경제성 등의 여러 다른 설계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한 설계사례로 한정하였고, 내용면에서 전통공간의 담장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전통공간의 담장들은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들로 가정하였고,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 담장들이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들이냐의 타당도에 대한 예비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선택된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의 사진들을 각각 10명의 피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여, 사진에서의 담장이 전통적이냐 아니면 현대적이냐라고 묻는 선택질문을 하여 10명 모두 전통적이라 응답한 담장들로 연구대상지를 선정하였다. 10명의 피험자들은 전통의 개념과는 무관한 산림자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로서, 단지 연구자가 사진을 제시하면서 전통은 현대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만 설명을 하여,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전통의 의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이 아닌 전통의 개념과는 무관한 피험자들으로써 예비조사를 한 이유는, 전문가인 설계가와 보통의 사람들인 이용자들간의 전통에 대한 선험적 도식(Schemata)의 차이를 없애고자 하였고, 설계의 결과물로서 이용자들인 보통의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전통의 의미가 본 연구의 목적에 더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대상지

사례연구의 대상지로 선정된 연구대상지를 공간별 위계와 장소적 특성에 의거하여 「궁궐공간」·「사찰공간」·「주거공간」·「전시공간」으로 구분하였는데, 궁궐공간으로는 경복궁·창

덕궁의 2지역 5개소, 사찰공간으로는 법주사·석남사의 2지역 2개소, 주거공간으로는 소쇄원·녹우당·낙안민속촌·한국민속촌의 4지역 6개소, 전시공간으로는 여미지식물원·독립기념관·신라호텔의 3지역 3개소, 총 11지역 16개소가 선정되었다.

경복궁·창덕궁·법주사·석남사·소쇄원·녹우당의 담장들은 전통공간의 담장으로, 낙안민속촌·한국민속촌·여미지식물원·독립기념관·신라호텔의 담장들은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낙안민속촌과 한국민속촌의 담장들은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로 엄밀한 의미에서 전시공간으로의 분류가 정확할 것이나, 전통담장의 원형을 추측할 수 있는 사례로 판단하여 연구진행의 편의상 전통공간의 담장으로 가정하여 주거공간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궁궐공간·사찰공간·주거공간의 담장들은 전통공간의 담장으로, 전시공간의 담장들은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담장으로 구분되었다.

3. 연구방법

사례연구의 분석내용은 의미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의 현시대에서의 설계적인 표현방법의 모색이라는 관점을 감안하여, 의미론과 연관된 여러 이론들 중에서 설계방법론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정보전달론·전달매체론·기호론(Lang, 1987, pp.203-215; Nasar, 1988, pp.11-73)에서 도출한 「傳言(Message)의 形式」과 「記號(Sign)의 役割」의 2측면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가를 알기 위해, 전통적인 분위기의 담장과 현대적인 분위기의 담장과의 표현방법의 차이를 전언의 형식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의 의미전달정도를 기호의 역할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간별 특성에 따른 장소성과 연관된 세부적인 의미의 표현방법을 기호의 역할로 분석하였다.

전언의 형식은 의미전달요소이자 설계요소로서의 담장의 시각적 특성을 고려하여, 「形態(Form)」·「紋樣(Figure)」·「材料(Material)」의 3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3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공간의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의 속성을 시각구성의 4요소인 형태요소·선요소·질감요소·색채요소와 연관시키면, 형태요소에 해당되는 담장의 전체적인 형태, 선요소에 해당되는 담장의 문양, 질감요소에 해당되는 담장을 구성하는 재료, 그리고 색채요소에 해당되는 담장의 색채에 의해 담장의 느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분석내용에서 색채의 측면은 색채와 연관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색채요소에 의한 설계적 접근의 한계가 예상되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기호의 역할(Broadbent et al., 1980, pp.340-342; 임, 1991, p.157)은 「圖像(Icon)」·「指標(Index)」·「象徴(Symbol)」의 3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도상·지표·상징간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으로, 지칭하는 사항이 기하학적으로 유사하거나 같을 경우를 도상으로, 지칭하는 사항의 흔적 혹은 지칭하는 사항의 물리적 표본을 나타낼 경우를 지표로, 지칭하는 사항이 유사성이나 물리적 관련성이 적거나 없을 경우를 상징으로 규정하였다.

사례연구의 분석방법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해석하는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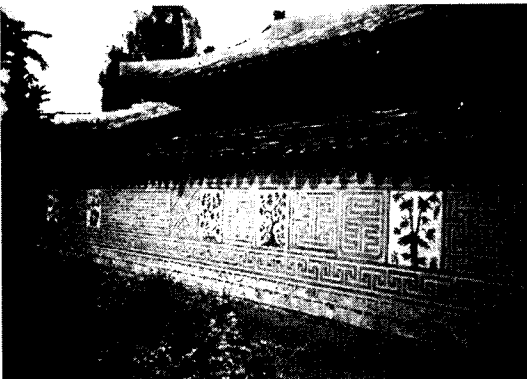
정성적인 분석방법을 택한 이유는, 공간의 의미전달요소인 담장의 구성과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복합적인 개념인 의미와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사진이나 슬라이드 등을 통한 쌍체비교나 순위조사와 같은 실험적이고 정량적인 분석방법이 적당할 것이나, 본 연구의 목적인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의미전달요소이자 설계요소로서의 담장의 보편적인 표현방법의 모색이라는 보다 큰 틀로 해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적이고 정량적인 분석방법보다는 정성적인 분석방법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Ⅲ. 사례연구

1. 전통공간의 담장

1) 궁궐공간

- 경북궁 자경전 서쪽의 꽃담(사진 1)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전돌담
 - 재료 : 사괴석·전돌·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전돌담
 - 문양 : 문자문양·식물문양·귀갑문양·기하학적 문양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 기호로서의 문양 : 도상·지표·상징



(사진 1) 자경전 서쪽의 꽃담

담장의 벽체에는 萬·壽·春 등의 문자문양, 육각형의 귀갑문양, 매화·국화·모란·석류·대나무 등의 식물문양, 그리고 근자문양과 뇌문의 亞자문양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이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꽃담의 길상문양들은 길상문양들과 의미적으로 연관된 장소라는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萬·壽·春 등의 문자문양과 근자문양·亞자문양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은 불로장생·무병장수·부귀영화 등의 상징적 의미를, 거북의 등이나 거물을 나타내는 육각형의 귀갑문양은 불로장생·벽사 등의 상징적 의미를, 매화·국화·모란·석류·대나무 등의 식물문양은 지조·품위·다산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조, 1989, pp. 34-37).

문자문양·귀갑문양·기하학적 문양은 붉은 전돌의 평면적인 조합과 석회의 치장줄눈에 의해 표현되었고, 식물문양은 석회로 바탕을 바른 후에 각각 여러 색채의 조각으로 구워 만든 전돌을 꿰맞추는 부조기법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자경전 꽃담의 길상문양들과 표현기법은, 길상문양들과 의미적으로 연관된 장소 즉 불로장생·무병장수·부귀영화·벽사·지조·품위·다산 등을 회구하는 곳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꽃담이 위치한 자경전의 격조와 품위를 나타내고 있다.

- 경북궁 자경전 뒷뜰의 전돌담(사진 2)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굴뚝겸용의 전돌담
 - 재료 : 사괴석·전돌·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전돌담
 - 문양 : 십장생문양·식물문양·동물문양·기하학적 문양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 기호로서의 문양 : 도상·지표·상징



(사진 2) 자경전 뒷뜰의 전돌담

자경전 뒷뜰에 있는 굴뚝은 여러 방으로부터 나오는 굴뚝을 한 곳으로 모아 일렬로 세워졌는데, 붉은 전돌과 석회로 마감처리된 넓은 벽체의 표면에는, 해·구름·바위·산·물·거북·학·사슴·소나무·불로초의 십장생을 비롯한 여러 길상문양들이 부조기법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

다양한 길상문양들이 새겨진 벽체의 표면은 한 폭의 민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짜임새 있는 구성과 섬세한 표현기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좌에는 소나무 우에는 연꽃과 포도나무의 형상이 크게 나타나 있고, 중앙에는 구름 위에 반쯤 가려진 해의 형상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학·사슴·거북·원앙새·불로초·대나무·국화·해·구름·바위·산·물 등의 여러 형상이 나타나 있다.

또한 굴뚝의 좌우 담장에는 근자문양과 뇌문의 亞자문양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십장생을 비롯한 여러 길상문양들과 기하학적 문양은, 불로장생·무병장수·부귀영화·부부화합·지조·품위·다산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허,1994,pp.77-81), 이러한 내용의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창덕궁 인정문 서쪽의 전돌담(사진 3)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전돌담
- 재료 : 장대석·사괴석·전돌·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전돌담
- 문양 : 문자문양·귀갑문양·기하학적 문양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 기호로서의 문양 : 도상·상징



(사진 3) 인정문 서쪽의 전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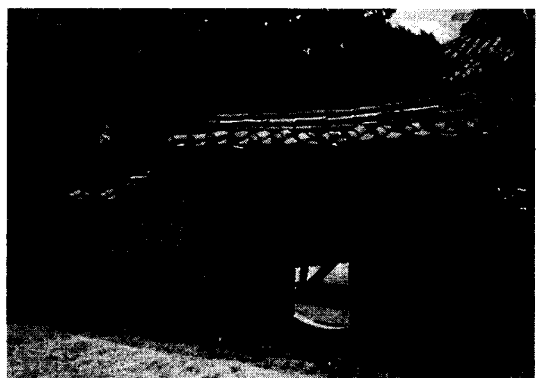
담장의 벽체에는 붉은 전돌로 근자문양·亞자문양·귀갑문양·문자문양 등의 길상문양들을 표현하여 길상문양들과 의미적으로 연관된

장소라는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담장의 하단부는 직선의 장대석과 사괴석으로 처리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표출하고 있다.

계속 이어지는 근자문양·亞자문양은 불로장생 등의 상징적 의미를, 거북의 등이나 그물을 나타내는 육각형의 귀갑문양은 불로장생·벽사 등의 상징적 의미를, 壽·福의 문자문양은 무병장수·부귀영화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창덕궁 전돌담의 길상문양들과 표현기법은, 길상문양들과 의미적으로 연관된 장소 즉 불로장생·무병장수·부귀영화·벽사 등을 희구하는 곳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전돌담이 위치한 창덕궁의 위엄과 품격을 나타내고 있다.

■ 창덕궁 낙선재 후원의 만월문과 전돌담 (사진 4)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전돌담
- 재료 : 장대석·전돌·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전돌담
- 문양 : 문자문양·식물문양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 기호로서의 문양 : 도상·지표·상징



(사진 4) 낙선재 후원의 전돌담

장대석 기초 위에 화강암과 전돌로 구성된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만월문의 형태와 전돌담에 표현된 우아한 문양의 짜임새는 예술적 조형성과 함께 세련된 표현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만월문은 궁궐의 협문으로는 유일한 원형의 문(장,1990,p.102)으로, 화강암과 전돌로 원

형의 출입구를 내고 좌우로 밀어 열게 되는
년출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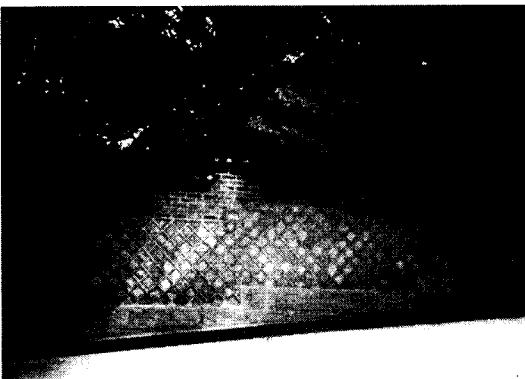
문의 바깥쪽 좌우 담장에는 계속 이어지는
기하학적 문양과 함께, 壽·福의 문자문양과
꽃의 식물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낙선재는 왕후와 후궁들이 거처하는 건물인
데,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만월문의 형태와 전
돌담에 표현된 우아한 꽃의 식물문양은 여인
이 거처하는 곳임을 암시하는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계속 이어지는 기하학적 문양과 壽·
福의 문자문양은 불로장생·무병장수·부귀영
화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불로장생·
무병장수·부귀영화 등을 회구하는 곳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창덕궁 비원입구의 사괴석담(사진 5)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사괴석담
- 재료 : 장대석·사괴석·전돌·기와머리
의 순서로 구성된 사괴석담
- 문양 : 직선문양·사선문양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 기호로서의 문양 : 의미전달과 무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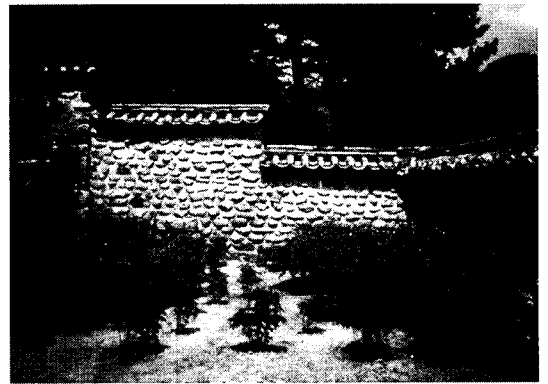
(사진 5) 비원입구의 사괴석담

장대석·사괴석·전돌의 조합에 의해 직선
과 사선문양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양은 의
미전달을 위한 기호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담장
의 시각적 변화감을 표출하기 위한 재료의 다
양한 조합기법의 결과이다.

2) 사찰공간

■ 속리산 법주사의 토석담(사진 6)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토석담
- 재료 : 자연석·흙·기와머리의 순서로 구
성된 토석담
- 문양 : 없음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사진 6) 법주사의 토석담

흙 한 켠 쌓고 돌 한 켠 쌓은 토석담의 예이다.

■ 가지산 석남사의 기와담(사진 7)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기와담
- 재료 : 기와·흙·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
된 기와담
- 문양 : 없음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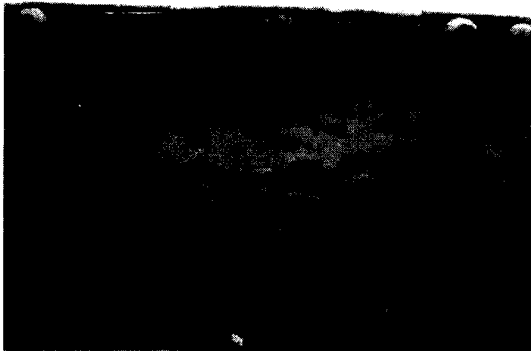
(사진 7) 석남사의 기와담

흙 한 켠 쌓고 기와 한 켠 쌓은 기와담의 예이다.

3) 주거공간

■ 담양 소쇄원의 애양단(사진 8)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토석담
- 재료 : 자연석·흙·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토석담
- 문양 : 문자문양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 기호로서의 문양 : 도상



(사진 8) 소쇄원의 애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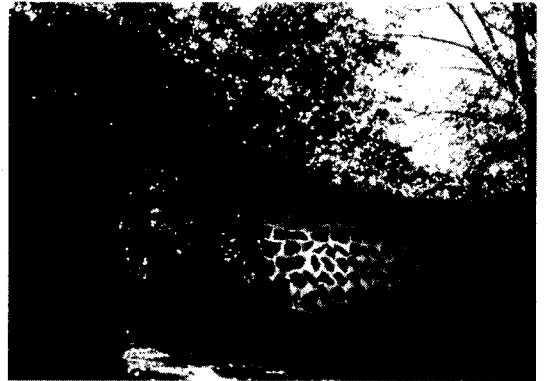
양산보의 별서정원인 소쇄원의 진입공간에 위치하는 담장으로, 담장의 이름인 愛陽壇이라는 문구를 음각기법으로 표현한 토석담의 예이다.

애양단은 햇볕을 좋아하는 터라는 뜻인데, 애양단으로 둘러싸인 곳은 겨울철 그 밑의 계류가 얼어있을 때에도 그곳은 봄볕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한 장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정, 1990, p. 213).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에다 장소적 특성을 뜻하는 애양단이라는 이름을 직접 표기함으로써, 애양단으로 둘러싸인 곳의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그 곳만의 차별화된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다.

■ 해남 녹우당의 토석담(사진 9)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토석담
- 재료 : 자연석·흙·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토석담
- 문양 : 없음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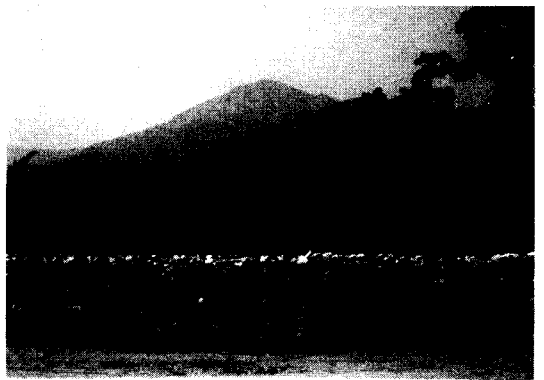


(사진 9) 녹우당의 토석담

고산 윤선도의 고택인 녹우당의 담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가의 토석담의 예이다.

■ 순천 낙안민속촌의 돌담(사진 10)

- 형태 : 담장머리가 없는 돌담
- 재료 : 자연석으로 구성된 돌담
- 문양 : 없음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사진 10) 낙안민속촌의 돌담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로 조선시대 일반 서민들의 주택담장인 돌담의 예이다.

■ 순천 낙안민속촌의 바자울(사진 11)

- 형태 : 담장머리가 없는 바자울
- 재료 : 식물재료로 구성된 바자울
- 문양 : 없음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사진 11) 낙안민속촌의 바자울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로 조선시대 일반 서민들의 주택담장인 바자울의 예이다.

■ 용인 한국민속촌의 토석담(사진 12)

- 형태 : 짚의 이영으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토석담
- 재료 : 자연석·흙·이영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토석담
- 문양 : 없음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로 조선시대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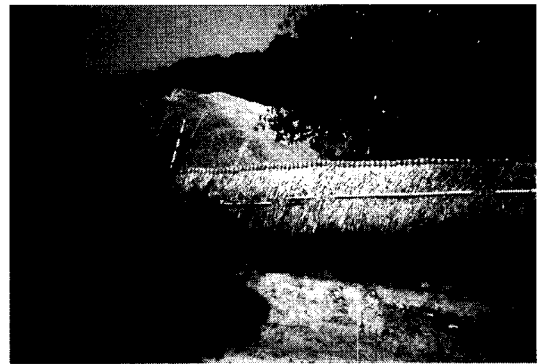
(사진 12) 한국민속촌의 토석담

서민들의 주택담장인 토석담의 예이다.

사대부 양반가인 고산 윤선도의 고택인 녹우당의 토석담과 비교하면, 일반서민들의 토석담의 담장머리는 짚의 이영으로 이루어진 초가인데 반해 사대부 양반가의 토석담의 담장머리는 기와로 이루어진 와가라는 차이가 있고, 또한 토석담에서 흙이 차지하는 비율도 일반서민들의 담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 용인 한국민속촌의 흙담(사진 13)

- 형태 : 짚의 이영으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흙담
- 재료 : 흙·이영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흙담
- 문양 : 없음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사진 13) 한국민속촌의 흙담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사례로 조선시대 일반 서민들의 주택담장인 흙담의 예이다.

2.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담장

■ 제주 여미지식물원 한국정원의 담장 (사진 14)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전돌담
- 재료 : 장대석·전돌·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전돌담
- 문양 : 문자문양·식물문양·귀갑문양·기하학적 문양

- 기호로서의 담장 : 도상
- 기호로서의 문양 : 설계기법상의 보조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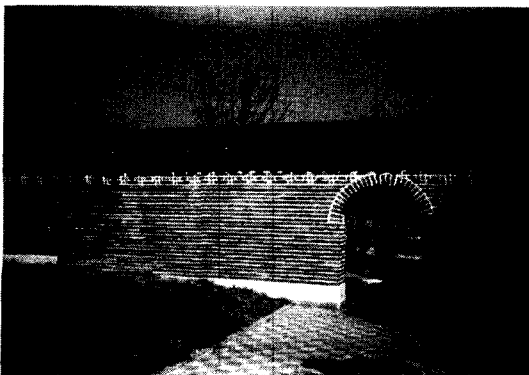


(사진 14) 여미지식물원 한국정원의 담장

한국정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요구되는 곳에서의 의미전달을 위한 담장의 설계기법으로, 전통담장인 경북궁 자경전의 꽃담을 그대로 재현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 천안 독립기념관 독립관 뒷쪽의 담장 (사진 15)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전돌담
- 재료 : 장대석 · 전돌 · 기와머리의 순서로 구성된 전돌담
- 문양 : 없음
- 기호로서의 담장 : 지표



(사진 15) 독립기념관 뒷쪽의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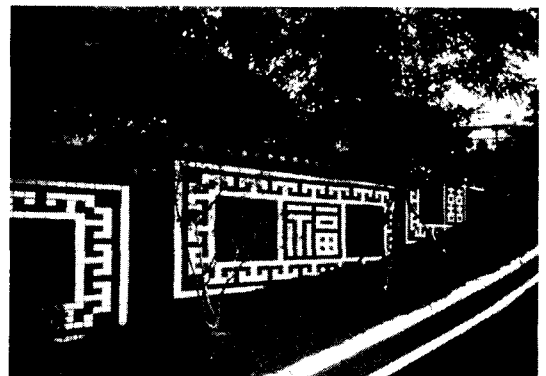
독립기념관이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분위기가 요구되는 곳에서의 의미전달을 위한 담장의 설계기법으로, 전통담장을 구성하는 형태요소(담장머리)와 재료를 모방하여 표현한 전돌담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재료가 표출하는 느낌의 측면으로는 전통재료인 전돌로, 형태가 표출하는 느낌의 측면으로는 와가의 지붕형태로 표현된 담장머리로 담장을 구성하여, 전통적인 분위기가 요구되는 곳으로서의 독립기념관이 갖는 전통적인 분위기에 부합되고 있다.

만약 재료는 전통재료인 전돌을 사용하였지만 담장머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기와로 이루어진 와가의 지붕형태로 표현된 담장머리가 전통담장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전달요소이자 형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서울 신라호텔 진입도로의 담(사진 16)

- 형태 : 기와로 된 담장머리가 있는 타일로 외부마감된 콘크리트담
- 재료 : 타일로 외부마감된 콘크리트담
- 문양 : 문자문양 · 기하학적 문양
- 기호로서의 담장 : 지표
- 기호로서의 문양 : 설계기법상의 보조 수단



(사진 16) 신라호텔 진입도로의 담장

신라호텔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전통적인 분

위기가 요구되는 곳에서의 의미전달을 위한 담장의 설계기법으로, 전통담장을 구성하는 형태요소(담장머리)와 문양을 모방하여 표현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재료가 표출하는 느낌의 측면으로는 현대적인 느낌과 연관되는 인공재료인 타일로 마감처리하였지만, 문양이 표출하는 느낌의 측면으로는 福·囍의 전통적인 문자문양으로, 형태가 표출하는 느낌의 측면으로는 와가의 지붕형태로 표현된 담장머리로 담장을 구성하여, 전통

적인 분위기가 요구되는 곳으로서의 신라호텔이 갖는 차별화된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다.

福·囍의 문자문양이 설계기법상의 보조수단으로 작용하여 전통적인 분위기를 배가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전통문양이 표현된 담장벽체가 전통담장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전달요소이자 형태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연구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구분	장소	사진	의미전달체계			담장내용
			전언형식	기호역할		
				전체	문양	
공궐공간	자경전 서쪽의 꽃담	1	재료 형태 문양	도상	도상 지표 상징	재료 - 전돌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문자·식물·귀갑·기하학적
	자경전 뒷뜰의 전돌담	2	재료 형태 문양	도상	도상 지표 상징	재료 - 전돌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실장생·식물·동물·기하학적
	인정문 서쪽의 전돌담	3	재료 형태 문양	도상	도상 상징	재료 - 전돌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문자·귀갑·기하학적
	낙선재 후원의 전돌담	4	재료 형태 문양	도상	도상 지표 상징	재료 - 전돌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문자·식물
	비원입구의 사괴석담	5	재료 형태	도상	무관함	재료 - 사괴석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없음
사찰공간	법주사의 토석담	6	형태	도상	없음	재료 - 토석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없음
	석남사의 기와담	7	재료 형태	도상	없음	재료 - 기와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없음
주거공간	소래원의 애양단	8	재료 형태 문양	도상	도상	재료 - 토석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문자
	녹우당의 토석담	9	재료 형태	도상	없음	재료 - 토석담 문양 - 없음 형태 - 담장머리(기와)
	낙안민속촌의 돌담	10	재료	도상	없음	재료 - 돌담 형태 - 담장머리 없음 문양 - 없음
	낙안민속촌의 바자울	11	재료	도상	없음	재료 - 바자울 형태 - 담장머리 없음 문양 - 없음
	한국민속촌의 토석담	12	재료 형태	도상	없음	재료 - 토석담 형태 - 담장머리(짚의 이영) 문양 - 없음
	한국민속촌의 흙담	13	재료 형태	도상	없음	재료 - 흙담 문양 - 없음 형태 - 담장머리(짚의 이영)
전시공간	여미지식물원의 담장	14	재료 형태	도상	보조수단	재료 - 전돌담 문양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문자·식물·귀갑·기하학적
	독립기념관의 담장	15	재료 형태	지표	없음	재료 - 전돌담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없음
	신라호텔의 담장	16	문양 형태	지표	보조수단	재료 - 타일로 마감 형태 - 담장머리(기와) 문양 - 문자·기하학적

<표 1> 사례연구의 종합

3. 사례연구의 결과 및 고찰

전통공간의 답장과 전통답장을 재현시킨 답장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전언의 형식과 기호의 역할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공간의 답장

■ 재료의 측면

- 전통답장은 사용된 재료에 의해 전돌담·사괴석담·토석담·기와담·돌담·바자울·흙담으로 구분되었다.
- 궁궐의 답장으로는 전돌담·사괴석담, 사찰과 사대부 양반가의 답장으로는 토석담·기와담, 일반서민들의 주택답장으로는 토석담·돌담·바자울·흙담이 주로 나타나, 공간별 위계에 따라 사용된 답장재료의 차이가 있었다.
- 전돌담과 사괴석담은 궁궐의 답장에만 사용되었는데, 경우에 따라 하단부에는 장대석이 사용되었다.
- 일반서민들의 토석담의 답장머리는 짚의 이영으로 이루어진 초가인데 반해 사대부 양반가의 토석담의 답장머리는 기와로 이루어진 와가라는 차이가 있고, 또한 토석담에서 흙이 차지하는 비율도 일반서민들의 답장이 높았다.

■ 형태의 측면

- 전통답장의 형태는 답장머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되었고, 답장머리의 형태는 기와로 이루어진 와가와 짚의 이영으로 이루어진 초가로 구분되었다.
- 돌담·바자울의 경우에는 답장머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흙담의 답장머리에 짚의 이영이, 토석담의 답장머리에 짚의 이영과 기와가, 전돌담·사괴석담·기와담의 답장머리에는 기와가 사용되었다.

■ 문양의 측면

- 공간별 특성에 따른 장소성과 연관된 세부적인 의미의 표현방법은 문양에 의해 이루어졌다.
- 궁궐의 전돌담에는 의미전달을 위해 여러 유형의 길상문양들이 표현된 경우가 많았는데, 壽·福·康·寧·富·貴·萬·囍·春 등의 문자문양, 십장생 등의 식물문양과 동물문양, 육각형을 반복시키는 귀갑문양, 그리고 근자문양·亞자문양 등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분되었다.
- 사괴석담의 경우에는 의미전달의 목적이 아닌 답장의 시각적 변화감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격화된 답장재료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직선문양과 사선문양이 나타났다.
- 사례연구에서는 토석담·기와담·돌담·바자울·흙담의 경우에 문양이 표현된 사례를 찾지 못하였으나, 토석담과 기와담에는 눈박이 등의 기법으로 단순하고 소박한 문양이 표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1989, pp. 78-83).

■ 기호의 역할

-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답장이라는 의미전달정도에 따른 기호로서의 역할은 전부 도상에 해당되었다.
- 공간별 특성에 따른 장소성과 연관된 세부적인 의미전달을 위한 문양의 기호로서의 역할은 도상·지표·상징 모두 나타났고, 상징으로서의 역할에 의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료수의 부족으로 통계적인 가치는 갖지 못하였다.

2) 전통답장을 재현시킨 답장

■ 재료의 측면

- 전통답장에서 사용되었던 전돌·사괴석·자연석·흙·기와·짚 등의 재료

들은 유용한 담장재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 형태의 측면

- 전통담장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기법이 가능하였다.
- 전통담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의 형태요소를 모방하거나 표현하는 기법이 가능하였다.
- 초가나 와가의 지붕형태로 표현된 담장머리가 전통담장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전달요소이자 형태요소로 작용하였다.

■ 문양의 측면

- 전통담장의 길상문양들인 壽·福·康·寧·富·貴·萬·壽·春 등의 문자문양, 십장생 등의 식물문양과 동물문양, 육각형을 반복시키는 귀갑문양, 그리고 卍자문양·亞자문양 등의 기하학적 문양은 유용한 담장문양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 기호의 역할

-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이라는 의미전달정도에 따른 기호로서의 역할은 도상과 지표에 해당되었다.
- 기호로서의 문양의 역할은 공간별 특성에 따른 장소성과 연관된 세부적인 의미전달을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기 위한 설계기법상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었다.

IV. 결론

전통담장의 재해석을 통한 현시대에서의 설계적 표현방법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전통공간의 담장과 전통담장을 재현시킨 담장에 대한 16가지 사례들을 전언의 형식(형태·재료·문양)과 기호의 역할(도상·지표·상징)이라는 2

가지 틀로 해석한 결과,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의 표현방법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전통담장이라는 의미표현의 기호로서의 역할이 도상에 해당되는, 전통담장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기법은 당연히 가능하다.

2) 전통담장이라는 의미표현의 기호로서의 역할이 지표에 해당되는 표현방법이 가능할 것인데, 그 표현방법은 전통적인 형태·재료·문양으로의 접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3) 전통적인 형태로의 접근이 전통적인 재료나 전통적인 문양으로의 접근보다 전통담장의 특성을 잘 나타낼 것이다.

4) 전통담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의 형태요소를 모방하거나 표현하는 기법이 가능할 것인데, 그 기법으로는 특히 담장머리를 초가나 와가의 지붕형태로 나타내는 전통적인 형태로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5) 담장머리를 초가나 와가의 지붕형태로 나타내는 전통적인 형태로의 접근과 함께 전통적인 재료나 전통적인 문양으로의 접근이 추가된다면 전통적인 분위기는 잘 표출될 것이다.

6) 특정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의미의 표현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문양으로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인데, 전통문양을 개발하고 도상·지표·상징의 적절한 기호로 담장에 표현하는 설계기법이나 시공기법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원래 설계작업을 지칭하는 영어 DESIGN의 어원(DE + SIGN)은 「-으로부터」를 뜻하는 접두어 「DE」와 「기호」를 뜻하는 명사 「SIGN」의 합성어에서 유래되었다. 전통담장을 대상으로 설계작업의 본질적 속성은 기호에서 유래되었다라는 맥락에서 시도된 본 연구에서, 비언어적인 기호체계의 장인 환경은 언어만큼 기호의 체계적인 구성과 명확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미의 정확한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의미가 지닌 내용에 부합되는 가시적인 형태의 표현에는 어려움이 있는 등, 전언의

형식과 기호의 역할이라는 틀로써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의 표현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에는 설계적인 한계가 뒤따랐다.

참고문헌

1. 김대현(1991), 「경관 시뮬레이션기법의 신뢰도와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생태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 박언곤·홍성수·김기서·차명렬(1985), 「한국 전통건축의 언어와 의미」, 건축과 환경, 8502:57-61.
3. 박길용(1984), 「한국정원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3:1-25.
4. 신영훈(1986),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374-380.
5. 안상수(1988), 「한국전통문양집 1 기하무늬편」, 도서출판 안 그래픽스.
6. 안영배(1980),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제:30-31.
7. 양병이(1991), 「한국조경에서의 전통계승」, 환경과 조경, 39:48-52.
8. 유병림(1984), 「전달매체론에 의한 도시경관의 해석이론 및 기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논문.
9. _____(1996), 「공원설계에서 기념성의 문제」, 한국조경학회지, 23(4):40-49.
10. 이강근(1991), 「한국의 궁궐」, 대원사:94-125.
11. 이규복(1988), 「도시와 상징」, 일지사:11-34, 206-285.
12. 이미영(1987), 「한국 사찰의 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임승빈(1986), 「조경계획·설계론」, 보성문화사:253-258.
14. _____(1991), 「경관분석론」, 서울대학교 출판부:155-200.
15. 장기성(1985), 「건축언어의 동일성」,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16. 장순용(1990), 「창덕궁」, 대원사:91-102.
17. 전라북도 정주시(1992), 「시상정립 기본계획」.
18. 정기호(1991), 「경관에 내재된 내용과 형식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19(2):23-31.
19. 정동오(1990), 「동양조경문화사」, 광주:전남대학교 출판부:208-215.
20. 정무웅(1975), 「외부공간의 담장에 관한 연구」, 건축, 91:9-14.
21. 정재훈(1990), 「한국의 옛 조경」, 대원사:8-12.
22. 조정현(1989), 「꽃담」, 대원사.
23. 주남철(1981), 「한국건축의장」, 일지사:112-123.
24. _____(1983), 「한국건축미」, 일지사:100-116.
25.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1992), 「한국문화 상징사전」, 동아출판사.
26. 한국토지개발공사(1994), 「CI개념을 도입한 단지 및 공원 시설물 연구」.
27. 허 균(1991), 「전통미술의 소재와 상징」, 교보문고:172-187.
28. _____(1994), 「서울의 고궁산책」, 도서출판 효림:77-81.
29. 현중영(1991), 「현대조경의 위상정립과 창조성」, 환경과 조경, 39:53-57.
30. 홍사중(1982), 「한국인의 미의식」, 전예원:161-191.
31. 황기원(1984), 「문화경관론에 의한 도시경관의 해석이론 및 기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논문.
32. _____(1989), 「경관의 다의성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17(1):55-68.
33. Alexander, C. et al.(1980), *A Pattern Language*,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114-119, 524-530.
34. Boulding, K.E.(1977), *The Image*, Michigan: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3-31.
35. Broadbent, G. et al. ed.(1980), *Meaning & Behavior in the Built Environment*, New York:John Wiley & Sons, Ltd.:340-342.
36. Broolin, B.C.(1980), *Architecture in Context*,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Co.:5-18.
37. Frutiger, A.(1989), *Signs and Symbols*,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Co.:235-289.
38. Halprin, L.(1973), *Cities*, Massachusetts:The MIT Press:68-71, 92-115.
39. Hough, M.(1990), *Out of Place*, New Haven:Yale University Press:85-121.
40. Kaufman, L.(1979), *Perception*,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155-219.
41. Lang, J.(1987),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New York:Van Nostrand Reinhold Co.:203-215.
42. Nasar, J.L. ed.(1988), *Environmental Aesthetic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11-73.
43. Thiel, P.(1981), *Visual Awareness and Design*, Washington: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9-13.
44. Tuan, Yi-Fu(1977), *Space and Place*, Minnesota:North Central Publishing Co.:8-18, 67-117.
45. Venturi, R. et al.(1977), *Learning from Las Vegas*, Massachusetts:The MIT Press:3-20, 87-103.